

“‘제값’ 받는 관광, 관광관리지표 개발을”

여름 앞둔 안정적 상수도 기반 구축 주력 서귀포시, 배수관 정비·절수설비 보급 등 주력

도, 어제 경제산업정책회의... 관광분야 이슈 논의 ‘관광관리지표’ 개발로 새 정책패러다임 정립 제안

제주관광시장의 성장을 위해선 ‘고품질’을 내세워 ‘제값 받는 관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5차 경제산업정책회의를 열고 ‘데이터로 보는 제주관광의 동향과 이슈’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과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컨벤션뷰로,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관광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제주

관광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어 내·외국인 시장 전략 마련, 고물가 대응, 인식 변화 유도, 혁신 콘텐츠 개발 등 관광이 직면한 과제를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고선영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국인 관광시장은 양적으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고품질 관광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집중 마케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관광객은 특정시장, 특정업종, 특정지역에 편중되므로 주요 타겟층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기초분석과 함께 위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또 “관광객들이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 삶의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사생활 침해, 치안 불안 등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도민 인식 전환과 수혜 확대 등을 포함한 ‘관광관리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제주관광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주관광이 ‘제값’을 받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도민의 수용태세 확대를 위해 제주·국내·해외의 수요자 분석을 비롯해 관광콘텐츠 개발, 항공수요 대응, 가격·서비스 기준 제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방문이 저조한 국가의 시

장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객 유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영훈 지사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낮은 관광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와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계획이 제4차 관광진흥계획(2024~2028년)에 담겨야 한다”며 “관광업계와 도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토론하며 구체화하도록 기획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민간항공우주산업 등 민선8기 핵심 공약과 연계한 제4차 관광진흥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중기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서귀포시가 상하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안정적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에 시는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 및 절수설비 보급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3월 말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지하수 포함) 130억원을 부과해 120억원(징수율 92.3%)과 체납액 22억8000만원을 각각 징수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수량 감면과 기초수급자·착한 가게·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누수량 감면은 1320건·1억5700만원, 요금 감면은 1만1415건·1억7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출수 불량지역인 보복동 일원에 대한 안정적인 급수환경 조성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상수도 배·급수관 800m에 대한 정비공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16억원 들여 배·급수관 5.2km 구간의 정비공사를 추진 중으로 오는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수도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선정해 오는 6월까지 절수설비(절수형 양변기) 38개를 설치·지원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재산세 부담에 공한지 주차장 조성 급증

서귀포시 최근 30여건 몰려... “연간 6~13곳 처리” 제주시 아라동 일대 토지값 오르면서 비슷한 양상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가격이 급증하면서 공한지 토지주의 주차장 조성사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당장 토지를 활용한 개발 계획이 없어 향후 최소 4년간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해 세부담을 덜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토지가 연간 3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토지 면적이 10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시 아라동 일대의 토지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일명 ‘번호표’를 받아 주차장 조성 사업지 선정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서귀포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 최근 4년간 신청·조성대상지·면적·사업비 규모는 ▷2020년 21개소·13개소·273만·4억9500만원 ▷2021년 17개소·8개소·336만·4억5600만원 ▷2022년 36개소·6개소·144만·4억6300만원 ▷2023년 20개소·8개소·200만·5억원(예상) 등이다. 올 연말까지 신청이 누적되면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공한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지원사업의 경우, 의무기간이 당초 최소 2년에서 2020년 8월부터 4년까지 확대됐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토지주들의 관심이 높다”며 “다만 연간 처리하는 물량이 한정적이라 다소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5억원을 투입해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 위치한 공한지를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주차장 8개소·20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귀포시학생문화원과 신시가지 대신중학교 인근, 중문 백구동네 정류소 인근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주차장 조성은 목표로 실시설계 및 토지주와의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 완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매입비 절감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이 가능해 앞으로도 관련 사업 추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삼성여고~칼호텔 도로 착공 서귀포시, 70억원 투입

서귀포시가 삼성여고~칼호텔(중로 3-1-18호선) 개설공사를 최근 착공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 7.) 시행에 따라 주민 이용도와 보전가치가 높은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8개 노선 가운데 1개 노선이다. 2019년부터 보상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88%다.

해당 도로는 1997년 11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선으로 길이 760m, 폭 12m로 사업비 70억원(보상비 52, 공사비 18)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높은 보상률과 환매권 발생 등으로 올해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지난 3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했다.

시는 올해 확보한 예산 5억원을 들여 토목공사를 비롯해 오·우수관 매설작업을 시행 중이다. 백금탁기자



물웅덩이로 변한 도로 제주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해안도로에 빗물이 고이면서 운행 중인 차량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강다혜기자

집중호우 대비 지방하천 27개소 정비 제주시, 약 4억 투입 퇴적물 준설 등 실시

제주시는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하천 27곳에 대한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환경 정비는 지방하천 내 미관, 통수 능력 등의 저해 요인

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투입 예산은 총 3억9300만 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를 통해 6월까지 잡초, 잡목 등 지장물 제거에 나선다. 또한 하천 내 우수 흐름을 원활하

게 만들기 위한 퇴적물 준설 작업을 벌여 집중호우와 태풍 시 농경지와 주거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박춘호 안전총괄과장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하천과 우수저류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